

조감도(최종안)

천주교 포이동 교회

Poi-dong Catholic Church

현 포이동 성당은 가설건물로 지어져 있어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천교활동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교회는 이에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한 공간으로 새로이 조성할 목적으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해 6월 최종 당선작을 확정, 발표하였다. 총 15개 사무소가 참가한 이번 설계경기의 최우수작에는 연미건축(손웅익)안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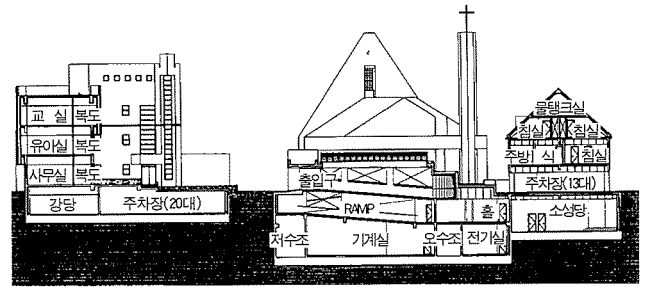
최우수작

연미건축(손웅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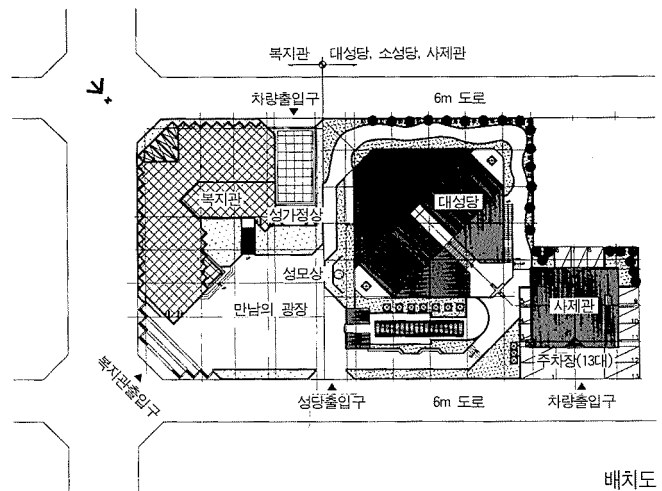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6-2
 대지면적 / 1,418.70㎡
 건축면적 / 667.61㎡
 연면적 / 1,994.05㎡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건폐율 / 47.1%
 용적률 / 4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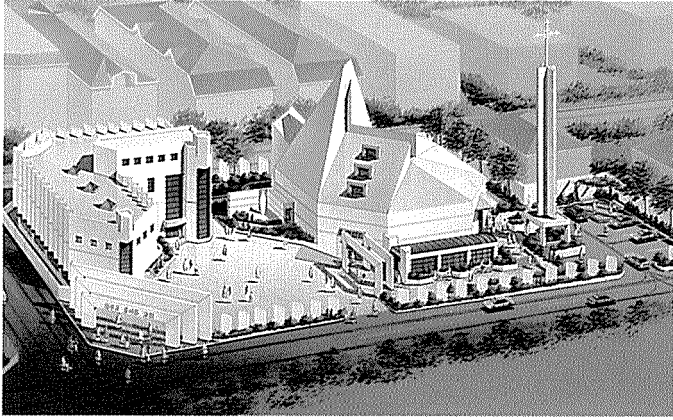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6-10
 대지면적 / 999.80㎡
 건축면적 / 428.17㎡
 연면적 / 1,927.45㎡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건폐율 / 42.8%
 용적률 / 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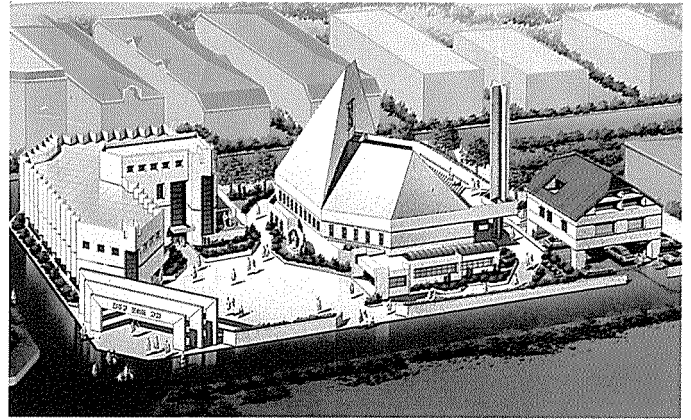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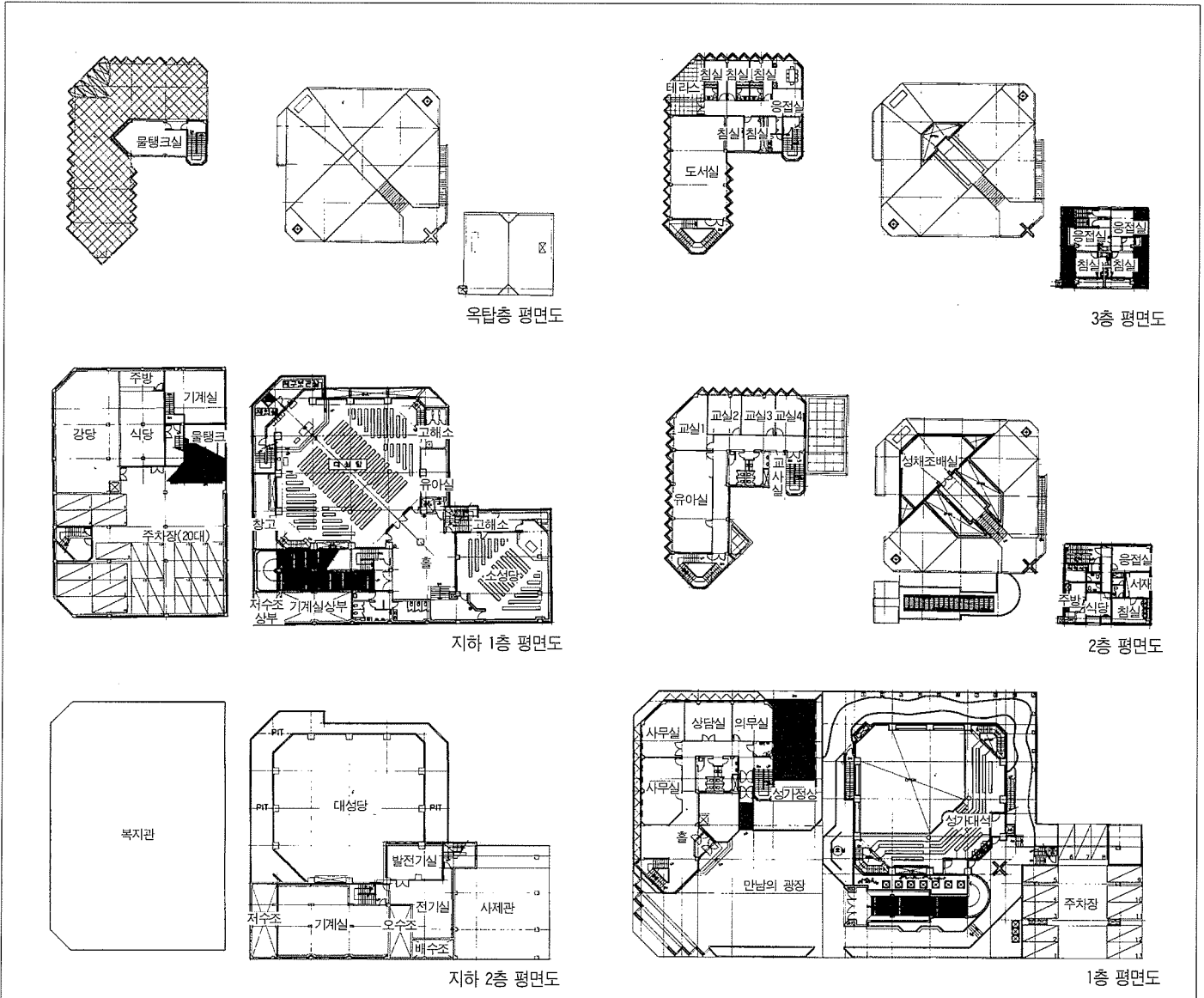
배치도



조감도(최초안)



조감도(1차 변경안)



이 성전이 건립될 부지주위는 당초 도시설계 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하여 필지를 분할하고 도로망을 구성하였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 도로는 사계절 꽃과 수목이 그 자태를 변화시키고, 비가 올 때면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고 어른들은 향수에 젖어 진흙탕길을 걸어보는 도심속의 공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주거용 보다는

복합상업용도, 근린용도의 건물로 채워졌고 주위의 도로는 주차장화하여 주거환경은 극도로 나빠졌으며, 건물형태와 용도, 색상 등은 각양각색으로 서로 앞 다투어 나서려 하고 있어 혼란의 한계상황으로 인식된다.

이 성전주위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우 복잡하다. 다행히 부지 동남측에 근린공원이 있어 숨통이 트이나 구룡사의 과도한 형상이 그나마 Open Space를 무력하게 만든다.

성전의 장소성으로서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변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혼란하게 개발된 주위의 도시질서를 정리하고 이웃주민에게는 마당으로서 항상 접근이 가능하며, 친밀하고 포근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교우들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성전으로서 더욱 의미있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한다.